

KTO파트너스, 고용노동부 「2026년 노사 상생파트너십 지원사업」 선정

KTO파트너스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2026년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은 노사가 사업장 내 다양한 현안과 갈등을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사업이다. 노사파트너십 형성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개별 사업장은 최대 4천만원, 단체 사업장은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KTO파트너스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사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장별 현안을 공동으로 발굴·해결하는 한편, 조직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사제도와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조직 몰입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KTO파트너스는 지난 2022년 노사파트너십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사업은 제한된 경영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및 노노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사와 근로자 대표는 정부지원사업 공동 참여를 계기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 기간 동안에는 전국 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 공동 간담회, 조직문화 진단, 노사협력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구성원 간 공감과 신뢰를 확대할 예정이다.

KTO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선정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되는 소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며 “앞으로도 인사제도와 조직문화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구성원이 행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고 밝혔다.

근로자대표는 “노사 대표가 전국 사업장을 직접 순회하는 현장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영진과 현장 근로자가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 이라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감경영’ 을 실현하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 고 말했다.